

1. “광역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4.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의 고유 권한이다. 시·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다. ()
5.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
6. 이전은 건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7.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야 하지만 정착되지 않아도 건축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
8. 건축물이 없이 나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경우 해당 옹벽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X)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광.특.특.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임에 유의.
2. (X)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X)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X)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이다. '같은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지정한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지정권한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5. (X)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단독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구역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를 위한 구역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6. (O)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며 이전은 31회 출제되었다.
7. (O) 원칙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어야 하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예외적으로 건축물로 인정한다.
8. (X) 옹벽이나 담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경우에만 건축물로 본다. 건축물이 없이 담장만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